

# 당원 참여 비중 놓고 살바싸움 ... 경선 룰 난항 땀 100% 여론조사

## 광주·전남 시도지사 구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통합을 통한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 구도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우선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 출마예정자들은 새롭게 태어날 신당에서의 통합경선을 예상하며 향후 새로운 경선 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간 경선을 거친 뒤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도지사 선거가 통합 신당의 창당에 따라 예선격인 통합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가세해 '3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선 4선 이낙연 의원과 3선의 주승용 의원, 재선의 김영록 의원이 뛰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가 변수이며, 이석형 전 합평군수 등 새정치연합 후보군은 비중이 더욱 줄어들어 왔다.

## 광주 姜·李·尹 3과전 - 전남 박지원 변수

(강운태·이용섭·윤장현)

### 예선이 본선 ... 후보들 '새 경선 룰'에 촉각

민주당은 최근 '대의원 10%+리더당원 30%+일반당원 10%+시민 50%'의 광역단체장 경선 룰을 내놓았다. 사실상 당원 50%와 시민 50%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신당이 창당이 되면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정할지 여부가 향후 광역단체장 경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기존 민주당의 룰을 통합 신당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광주시장 선거에 선 강운태 광주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강 시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창당도 하지 못한 새정치연합측의 경우 당원이 없는 상황 이어서 사실상 당원 50%를 포함한 경선은 힘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통합 신당은 경선에서의 당원 참여 비중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출마예정자들도 당원 비중에 따른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선 룰을 놓고 출마예정자들 간 혼란은 가

중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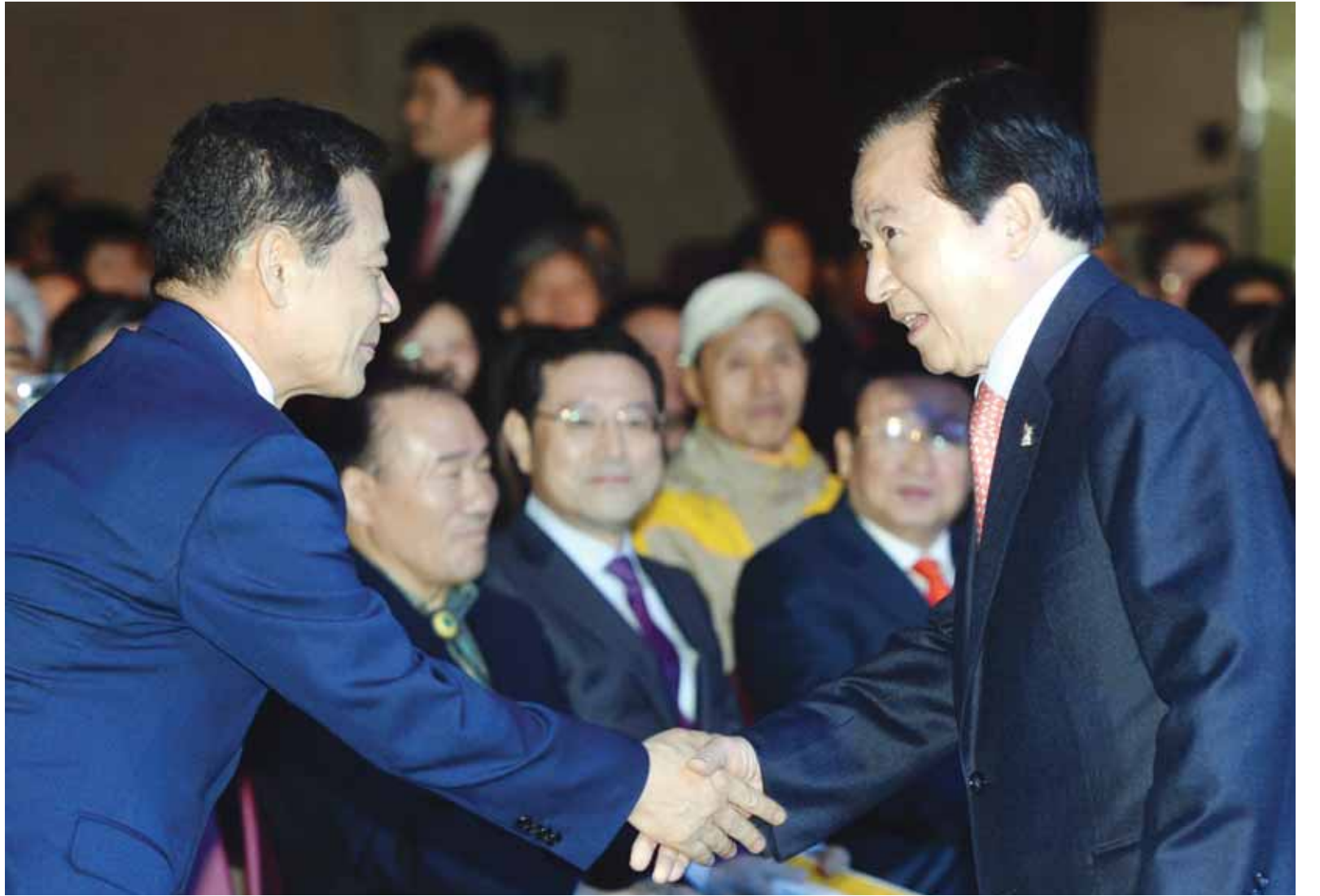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공천 원칙은 상향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5대5 지분 통합으로 광역단체장 전락공천 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분 나눠먹기식 공천을 할 경우 구태정치로 여겨, '새정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다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같은 수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당원 참여를 줄이는 반면 국민 참여 및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도 신당 경선이 본선이 되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이 경선 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만약 당원 참여 비율을 높고 경선 룰이 난항을 겪을 경우 100% 시민여론 조사를 통한 경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



약수는 하지만 ...

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광주시장 유력 후보들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 위원장이 약수를 나누고 있고, 그 뒤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후보 난립 땀 현역에 유리

### 기초선거 '무공천' 파장

무공천은 그동안 선거의 관전 포인트였던 민주당 공천자와 새정치연합 출마자의 대결 구도를 무너뜨리고 후보 난립의 무소속 대결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역 단체장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경선을 통해 현역 단체장을 꺾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당원 모집과 당내 경선에 전력 투구를 해왔지만, 무공천에 허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천 폐지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는 "지금껏 구청장 경선을 준비해왔지만, 무공천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구청장 출마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측 기초단체장 출마예정

자들도 혼란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 측의 무공천 결정에 따라 민주당 후보와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인해 후보 단일화 논의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또한, 통합 창당선언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연합에 합류했던 인사들은 입장이 약간 머쓱해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을 통하지 않고 '안철수 바람'에 힘입어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인물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 단체장과 맞서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벌써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일부 입지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현직 단체장과 맞서는 후보 단일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라지는 기호 2번

### 야당 부정적 영향 불가피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도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선언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의원 뽑는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선거의 투표용지는 '국회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당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1번은 새누리당, 기호 2번은 민주당, 기호 3번은 통합진보당, 기호 4번은 정의당 후보의 이름이 명사돼 왔다. 또 기호 5번부터는 의석이 없는 정당에 부여하고, 그 뒤로는 무소속 출마 후보들에게 추첨에 따라 기호를 차례로 배정해왔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후보들은 이번 기초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선관위의 추첨에 응해서 기호 5번 이하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새정치 모두 "환영" ... 해석은 '아전인수'

### 시·도지사 캠프 반응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 측 선거 캠프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 신당 창당에 따른 통합 경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은 환영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두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반겼다.

강 시장 측은 이번 신당 창당 결정으로 인해 향후 광주시장 선거에서 경선 룰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세가 높은 강 시장 측에선 향후 통합 경

선이 당원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합당 취지가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기존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제외하곤 경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장 출마에 나선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환영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당원 및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 시장에게 뒤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민주당 공천룰은 불리했지만, 신당 창당이 이뤄져 당원들에게 대한 권리가 상당부분 줄어들거나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이뤄질 경우 이 의원 측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정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새정치를 민주당에서도 응원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광주시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여러분의 힘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게 됐다. 새로운 정치는 광주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시민의 힘'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 측도 향후 광주시장 선거를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5대5, 같은 수로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주승용 의원도 "민주당의 정통성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열망이 결합한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자치단체 공천폐지 합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합당 선언이 선

게에 미치는 영향과 통합시 내부적인 지역의 안배, 경선 방식 등 예측 가능한 변수를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회의를 통해 선거 전략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합당 시 권리당원, 중앙당 대의원의 재편에 따라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후보로 압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내놓고 있다.

주승용 의원 측은 대책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록 의원도 "야권통합이 전국 정당회의의 초석이 되고, 지방선거 승리와 2017년 대선 승리로 이어져 새 정치, 개혁정치 완성을 위해 귀결될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거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개최장소	개최구역
제1권역(동부권)	2014.3.6(목) 14:00~17:00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제2권역(광주권)	2014.3.7(금) 14:00~17:00	화순하늬문화센터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정성군, 곡성군
제3권역(서부권)	2014.3.11(화) 14:00~17:00	전남여성플라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함평군
제4권역(남부권)	2014.3.12(수) 14:00~17:00	해남군문화예술회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대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개설강좌**

강좌명	시간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 길잡이	90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방안	80분

**선거아카데미 관련 교육문의 및 신청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061-288-8143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관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